

특별기고

은행과 은행 나뭇잎을 이용하자



정기연 주필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은 공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은 공해를 흡수하고 소화해 버리는 장수 식물이다. 그러한 식물은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심겨 있다고 은행이 공해가 있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은행은 여러 겹의 껍질 속에 들어 있으므로 은행알맹이는 공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약으로 쓰이는 은행잎은 가로수가 아닌 곳에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마다 독일 제약회사에서는 한국산 은행잎을 수입해 간다.

은행나무 단풍잎은 혈액순환 약인 정코민의 원료이며 친환경 농약의 원료로 이용한다. 그러므로 나뭇잎으로 떨어지는 은행잎을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은행 열매에는 간늘, 팻틴, 히스티딘, 전분, 단백질, 지방, 당분 등이 많이 들어 있어 폐결핵 환자나 천식 환자가 오래 먹으면 기침이 없어지고 가래를 줄여주는 약리작용을 한다.

성육감피, 뇌반혈, 신경쇠약, 전신 피로 등과 뇌혈관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다. 예전부터 은행은 혈액순환을 돕고 폐를 튼튼히 하며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사용했다. 가슴앓이나 가래, 천식에도 널리 이용됐다. 익힌 은행은 여성들의 대하증, 피부미용, 유선염, 유방염에 효과가 있으며, 남성은 조루증 치료와 강장제, 오줌싸개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먹기에 간

편하며 프라이팬에 볶거나 불에 구워 먹어도 되며 기름을 짜거나 찐어서 복용해도 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은행의 약효는 익힌 것과 날 것의 쓰임새가 다르다. 익힌 것은 오줌싸개(요실금)를 치료해 지노 효과가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날 것의 오줌이 자주 나오게 하는 빈뇨 효과가 있으며 열을 식히고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은행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현재 절강성(浙江省)에 약간 자생하고 있으며 한국·일본의 고산·고원지대를 제외한 온대에 분포한다. 높이는 5-10m나 40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은행나무는 화재와 공해에 강하고 한번 심으면 1000년 이상 사는 유실수이며(용문사 은행나무는 1,100살) 산소 배출량이 다른 수종의 5-6배라 한다.

광주광역시 시의 시목(市木)은 은행나무다. 도심에 집중되어 은행나무 가로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많이 심어져 있다. 은행나무는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고 속성수로서 녹음조성이 잘되고, 가을이면 노란색 단풍으로써 한류하르로 광주시민이 사랑하는 시목으로 선정된 것이다.

은행나무 묘목은 은행나무 씨앗인 은행을 파종해서 묘목을 만드는데 암수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암수에서만 은행이 연다. 따라서 은행 묘목은 최근에는 씨를

파종하여 돌은 어린 묘에 암그루 접수를 접목해서 만든 접목 묘와 접목을 하지 않은 일반 묘가 있는데 일반 묘는 어려서 암수 구별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나무 묘목 선택은 은행이여는 암그루 접목 묘를 택해 심어야 할 것이다.

은행나무는 열매가 여는 수익성이 있는 유실수로서 손색이 없으며 우량종묘의 은행은 매실 만큼 큰 것도 있다 한다. 따라서 은행나무 가로수로 유실수로 이용하는데 착안해 일 석 2조의 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은행나무는 목질이 좋아서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므로 우량 목재생산을 위해 산림녹화의 수종갱신을 은행나무로 했으면 한다.

새로 신설되는 도로의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는다면 유실수로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생각하면서 한적한 도로변에는 암그루를 많이 심고, 변화한 도로변에는 수그루를 많이 심는 배양을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의 수그루를 암그루로 만들려면 고집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전문적인 접목 기술이 따른다고 한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여름에는 녹음을 주어 좋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좋으며 은행 열매가 많이 열게 되면 유실수로서 소득도 올릴 수 있으니 소득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은행나무 가꾸는 방법을 익혀서 은행나무를 잘 가꾸고 버려지는 은행과 은행잎을 잘 이용했으면 한다.

독자 투고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20대 가장 많아

“목포지검 000수사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000씨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도용되어 이대로 두면 모든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관하고 수사 종결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 수법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고전적 수법의 보이스피싱에도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남지역 전 화금융사기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면, 발생 비율은 대출사기형이 83%로 가장 많으나, 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기관사칭형이 2,816여만 원으로 가장 많다. 기관사칭형 사기 유형으

로는 수사기관·공공기관 사칭, 은행 등 금융기관 사칭, 우체국 택배 사칭하는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피해자별로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노령층보다 20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 요구,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112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전화해 즉시 확인하고,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하겠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보이스피싱,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의심하고-전화끊고-확인하고” 3요령칙을 꼭 기억하자.

/목포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강지연

야간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꿀팁

야간운전에는 왕도가 없다. 제 아무리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한 치의 실수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야간운전도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어두워지기 전에 전조등을 미리 켜야 한다. 야간이 되면 시야가 좁아져 빛에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둘째, 실내는 어둡게 하여야 한다. 환한 실내등은 앞 유리에 반사되어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셋째, 천천히 주행해야 한다. 밤에는 전방의 시야가 좁아져 같은 속도도 주행할 지라도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한다. 넷째,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몸이 둔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야간주행에서는 내차의 방향을 미리 알리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최소 목적지 30미터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도로의 상태나 장애물, 차로 등을 확인하고 1차선 주행을 피하는 등 중앙선으로부터 떨어져서 주행하여야 한다. 반대편 차량의 라이트로 인한 눈부심 방지 및 중앙선 침범 차량이나 도로를 횡단하려 보행자 외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 운전에서는 모든 상황을 오로지 불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주변 상황을 살피고, 여유 배려를 가지고 안전한 운행을 해야 한다. 운전에서 자신 있다며 자칫 방심하다간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김대원

독자 기고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



최순선 국민건보공단 무안신안지사장

인 의사를 대표로 세워 운영하는 사실상 영리병원(약국)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2020년 6월 기준 3조 4천억원(1,621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조사에서 사무장병원임의 의심되어도 공단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그 과정에서 불법개설의료기관 당사자들의 재산은닉으로 환수율이 5.2%에 불과하여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개정법률안이 '20.8.18.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및 '20.9.1. 서영석 의원 추가 발의가 심의 중이다.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주관한 전국 150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국민 대다수는 사무장병원 폐해가 심각

(73.2%)하므로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적극 찬성(81.3%)하고 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첫째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 11개월 → 3개월)로 연간 약 2,000억 원 재정누수 차단(의료급여비용 포함)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둘째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 누수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 셋째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 보호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사무장병원이 적절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될길 기대한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101번안길 19-2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회장 김경, 발행·편집인 전광선, 사장 이문수, 편집국장 윤규진, 주필 정기연, 대표전화 (062)227-0000, 광고 (062)227-0000,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미팅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안,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자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Green Premium Vera Gold 400 Aloe Vera Gel. Features include: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Includes a consumer satisfaction survey number 080-234-6588 and a statement: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